

# 에볼라 확산... WHO 비상사태 선포하나

〈세계보건기구〉

스위스서 긴급위원회 열려... 국가간 전파 면밀히 조사

韓도 참석... "위원회 결정따라 대응 수위 결정하겠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일과 7일 이틀 간 서부 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 PHEIC)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거릿 쉐ن WHO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1일 아프리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 정상들과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WHO는 5일(현지시간) 긴급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지역별 균형을 맞춰 선발하는 최종작업을 벌였다. 긴급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 모든 전문가가 참석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화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되며,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제 간 전파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PHEIC를 선언하고 WHO에 여행 자제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긴급 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은 특

정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전문 자격으로 참여한다.

WHO 긴급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사람과 사람 간에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어 PHEIC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라고 결정된 바 있다.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파견된 보건복지부 김강립 공사참사관은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감염사례가 적었던 파키스탄 등의 야생 소아마비 바이러스때도 이틀간 긴급 위원회가 소집돼 전파를 막도록 예방접종 의무화 등 강력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소집되는 긴급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한국도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사는 "올해처럼 많은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적이 없고, 지금까지 매우 넓은 지역이 감염된 적도 없었다"면서 "국가 간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는 과거 공기를 통해 전염됐던 사스나 조류독감바이러스(H7N9) 때보다 쉽게 전파가 안되고, 초기에 발견해 관리만 잘하면 전염도 안 돼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미국인 의사 2명이 특정 치료약으로 호전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았고 양산체제도 갖추지 못해 당장 치료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일시 휴전... 적막 흐르는 가자지구

양국 대표 이집트서 평화협상

이전 커 영구휴전은 미지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72시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에 돌입한 5일(현지시간) 한 달 가까이 포성이 끊이지 않았던 가자지구에 짧은 평화가 찾아왔다.

지난달 8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온전한 휴전이지만 이를 후에도 이런 모습이 유지될지는 장기 휴전 협상결과에 달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집트 카이로에 대표단을 보냈으며 6일부터 영구적인 휴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영국 BBC방송의 대담 프로그램 '하드토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이번 한시 휴전을 계기로 광범위한 중동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양측이 영구적인 휴전협상에 도달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

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휴전 조건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국 영토에 대한 로켓 공격을 중지하고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상에 참여 중인 고위 외교관은 "양측 모두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가자지구를 재건하고 봉쇄를 해제하는 대신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관할로 돌려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줄이자는 합의 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여기에 하마스가 교전 전보다 세력을 키운데다 그동안 고립되다시피했던 외교 문제를 미국과 이스라엘과 나란히 협상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이 양측의 휴전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위안부는 심각한 인권위반

美, 일본 강제 동원 강력 지적

"한·일간 관련협상 환영"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일본의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중대한 인권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한·일간에 진행 중인 위안부 문제 관련협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패트릭 벤트렐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정부 관리들이 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한 것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지난달 31일 백악관 대외협력실(OPE)이 '나눔의 집'에서 온 두 명의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이 겪은 경험을 나눴다"고 확인했다.

벤트렐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말해왔듯이 1930년대와 40년대에 성을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행위는 개탄스러운 것이며 중대한 인권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적을 바라며 규모 6.5의 지진 발생 사흘째인 5일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 자오통(昭通)시 루옴(魯甸)현 룽터우산에서 구조대원들이 폐허화한 가옥더미를 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6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 현재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89명, 실종자가 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중원난 강진 사망자 600명 넘을 듯... '골든타임' 종료

고립 마을서 희생자 무더기 발견

부상자 2401명...40명은 위독

중국 윈난(雲南)성 자오통(昭通)시 루옴(魯甸)현에서 지난 3일 발생한 규모 6.5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6일 오전 10시30분(현지 시간) 현재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89

명, 실종자가 9명으로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루옴현 504명, 차오자현 72명, 취징시 후이쩌현 12명, 자오통시 자오양구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 9명은 모두 차오자현에서 나왔다.

사망·실종자 규모는 전날 오후 2시까지 422명(사망 410명, 실종 12명)에서 하루 만에 176명이나 증가했다. 산사태로 길이 막혀 고립됐던 지진 피해 마을에서 희생자들

이 무더기로 발견된데 따른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부상자도 2401명으로 늘었다. 이재민 109만 명 가운데 23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주택은 2만 6000채가 붕괴했고 4만여 채는 많이 부서진 것으로 집계됐다.

윈난성 보건당국은 전날 오후 4시 현재 1295명이 입원해 있으며 중상자 122명 가운데 40명은 위중하다고 전했다. 구조당국은 지진이 발생한 이후 매몰자

들의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기 전 72시간을 가리키는 '황금시간대(골든타임)'의 종료(6일 오후 4시30분)를 앞두고 구조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윈난성 공무원과 군인 등 2만 명이 투입돼 피해지역 마을을 집집마다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작업을 펼쳤다. 루옴현에서는 전날 밤 88세 할머니가 50여 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美상대 첩보활동 위협국에 한국 포함

前CIA 스노든 기밀문서 공개

미국, 이스라엘에 정보제공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첩보활동을 하는 최대 위협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4일(현지 시간) 미국 독립 언론매체 '인터센트'의 보도로 공개됐다.

인터센트는 이날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새로운 NSA 기밀문서 내용을 보도했다. 인터센트는 스노든의 NSA 기밀문서를 처음 보도한 글렌 그린필드 기자가 주도하는 매체로 이 기사 역시 그린필드가 작성했다.

이 매체가 확보한 NSA의 '2007년 전략 임무 리스트' 문서에 따르면 NSA는 '외국 정보 위협 대처' 항목에서 미국정부와 군(軍), 과학기술, 정보기관을 겨냥해 첩보·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최대 위협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북한, 프랑스, 베네수엘라, 한국 등 10개국을 지목했다.

인터센트는 또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주변국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기술과 무기, 현금을 대대적으로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SA는 지난 10년간

이스라엘 정보기관 ISNU에 팔레스타인인을 감시하고 표적으로 삼는 데 활용되는 정보들을 제공했다.

NSA는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거액의 현금도 지급했다.

NSA가 2004년 4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에 5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양측이 주고받은 영수증을 통해 확인됐다.

이스라엘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에는 영국 정보기관 GCHQ와 캐나다 정보기관 CSECD도 참여했으며, 요르단 왕실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PASF) 같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야합 정권들도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매체는 "이스라엘의 (주변국) 공격은 미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지원과 보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서 미국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인터센트는 미국 국가대테러센터(NCC) 기밀문서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범 또는 테러용의자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약 68만명이고, 그중 40% 이상은 '알려진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국관광공사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www.oceanocc.co.kr

##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선불카드  
할인판매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팀(전원) 40%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구분      금액      비고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 중	60,000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료 포함)

061-536-3952